

■ 2024년 시각예술 창작주체 지원심의 총평

1. 시각예술 창작주체(개인 및 단체)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시각예술 창작주체(개인 및 단체)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23.11.30(목) 13:3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2차 인터뷰) 2023.12.7(목)~12.8(금) 9:30 /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명 : 김정연, 김희진, 남인숙, 유원준, 이현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2024년도 <시각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예술 현장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 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을 보장하여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각예술 분야 활동의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사업은 2024~2026년까지의 3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심의 되어 2024년부터 처음 시행되며, 선정된 사업은 매해 성과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될 예정이다.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시각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의 1차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상호 블라인드 상태에서 지원계획서를 모두 전수 심의하고, 시스템에 각 결과를 입력, 총합을 도출하여 상위 순으로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의 기준은 공지된 대로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향후 3년의 활동 목표 30%, 사업안의 현장 파급력, 책임성 및 기대효과 20%였다.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역량이 심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듯이 1차 서류 심의에서는 지원자의 활동 이력과 3년간의 성실한 사업 수행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3년간 진행할 사업의 구체성이 지원서에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 다음으로 보았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향후 3년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본 지원사업의 목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안을 도출하여 결과물의 구체성과, 지원사업의 의의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서를 주목했다. 더불어 3년치의 계획이 지닌 보편적 타당성 및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지속적 지원의 타당성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2차 인터뷰 심의는 모든 위원들이 지원안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위원별로 사업을 배분하여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질문안을 사전 준비하였고 이에 따라 인터뷰에서는 종합 및 심층 차원의 질의가 모두 진행되며 지원서에서 부족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대다수 지원자의 역량이 출중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심층 인터뷰에서 3년간 활동 내용과 예산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년간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사업보다 지속적인 책임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지원사업이므로,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특히 예산안의 합리

성과 설득력,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예술계에의 기여도에 주목했다. 3년간의 활동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원신청서의 경우, 예산안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지원신청안들은 국내외 전시를 위한 신작 제작안이 다수였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계획안, 자신의 사업을 공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계획안, 그리고 향후 성장을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한 계획안들이 돋보였다. 2차 심의 역시 각 위원의 인터뷰 심의 결과를 총합하여 총 22팀 중 고득점 순인 4팀이 최종 선정자로 도출되었다. 최종 합산 결과가 각 개별 위원들의 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예외적인 조정 없이 합의되었다.

심의과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의 주요 고려사항은 사업계획안의 정교한 충실성, 장기지원사업으로서의 차별성과 보편적인 타당성, 계획과 일치하는 예산안의 구체성과 현실성, 장기 공적 지원인 본 사업에 부응하는 성과의 구체적인 공공 환류 노력과 확산 가능성, 객관적인 사업 평가 방안,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책임 등으로 모아졌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제한된 예산에서 다년도 프로젝트의 기금을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선정된 팀들의 역량이 의심할 바 없이 출중하므로 문예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신청서가 제안한 예산 규모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사업을 위해 노력한 신청자들을 가급적 포용하기 위해 최종 선정자 수를 늘려 소액 지원이라도 배분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 지원자들이 신청 예산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점, 다수의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는 점 등의 문제에 따라 소수의견으로 배제되었다.

소회 및 당부사항

예술에서 다년차 장기지원사업의 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고, 수혜자의 필연적인 제한에 따라 예술 활동 구조의 만성화된 취약함을 일갈하기엔 부족할 것이나, 본 사업과 같은 예술지원 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신청서들에서 본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에, 대상을 부득이 선별해야 하는 애로가 없지 않았다.

지원신청안들에 있어서는, 국내외 시각예술계에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아 온 창작주체들이 더 새로운 프로젝트와 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 인상 깊었다. 또한 이제 막 해외로 도약하려는 지원자들의 경우 미래 비전을 꼼꼼하게 설계하는 모습이 이들의 향후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다만 3년간의 계획을

미리 구상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변수가 많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대한 공공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일부 계획서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각예술창작주체>사업은 3년간 이루어지는 다년간 지원 사업으로서 차별성을 지닌다.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3년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지속성을 갖고 연계, 발전하는 특수성을 지닌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3년간 지속되어야하는 당위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느슨한 사업계획으로 3년간 유사한 사업이 반복된다거나 활동 계획이 느슨하여 3년간 지원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3년간 동일한 예산안을 제안하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원자들의 예술적 성취도와 발전, 예술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과 관련한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는 질문의 여지가 없었으나, 문화예술 위원회의 지원사업은 공공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업 선례가 없는 난점 때문인지 신청안들에서 활동의 다양성과 개척 가능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 보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장기 활동안들이 개진되길 격려드린다. 나아가 지원자가 더 많아져야 지원자들이 계획하는 작품 심화 및 국제적인 확산에 실효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자들에게는 예술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인바, 그만큼 매해 사업 추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한편 문예위에게는 본 사업의 정책적 지속성 확보 및 3년 동안 지속적 지원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중간평가와 함께 그 의의와 중요성에 비해 협소하다 여겨지는 예산 규모를 조금이나마 확대하는 노고를 당부드린다. 정책 세부 차원에서는, 다년 사업의 경우 년도별 예산을 반드시 동일한 액수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일부 조정을 고려해 보시길 제안드린다.

심의회원 일동

2. 시각예술 창작주체(공간)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시각예술 창작주체(공간)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 2023.12.1(금) 13:30~18: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2차 인터뷰) 2023.12.11(월)~12.13(수) 09:30~18: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 : 고원석, 김영동, 박우찬, 정세라, 최태만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시각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존의 창작산실 지원사업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하고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새

롭게 시작된 다년(3년) 지원 사업이다. 기존 단년도 지원사업이 해당 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보다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는 다소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창작주체 지원사업은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본 심의는 신청자가 매년 지원 신청하는데 따르는 행정 소모를 줄임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핵심적인 창작주체를 발굴 및 육성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본 사업의 심의기준은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수행역량에 대한 배점(50%)이 창작산실 지원사업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고, 더불어 향후 3년간 활동 목표(30%), 현장의 파급력, 책임성 및 기대효과(20%)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년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해당 주체가 3년간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 심의는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의와 2차 인터뷰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차 서면심의는 각 심의위원이 오랜 시간을 들여 지원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배점 및 제출한 심의결과를 합산하여 장시간에 걸친 대면회의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한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의적이고 임시적인 사업의 반복보다 3개년간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구체적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지원안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이 처음 실행되는 것이고, 다년지원이라는 좋은 사업 취지를 감안, 지원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대체로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평가나 제출된 계획의 구체성과 수월성 등에 대해서 각 심의위원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2차 인터뷰 심의는 1차 심의를 통해 추려진 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규모 유형 지원사업은 사전 공지에 따라 별도의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치지 않고 1차 심의결과를 최종 배점으로 간주하여 평가되었다. 사립미술관, 민간전시공간, 특성화공간으로 나뉘어 진행된 인터뷰심의를 지원 공간의 대표자나 담당자가 먼저 지원안에 대해 발표한 후 심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각 심의위원이 1차심의 배점과 무관하게 인터뷰를 중심으로 새롭게 점수를 부여했으나 대체적으로 1차심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전체 심의위원 간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본 심의는 다년간 지원사업이라는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나 3개년간의 사업을 관통하는 일관성과 수월성 등이 자세히 검토되

었고 그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연례적인 예산편성이나 의례적인 조 직운용에 안주하기보다 사업수행에 관한 진취적인 의욕과 적극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단체들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또한 예술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고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의 단체들은 심의위원 간 활발한 정보 교환과 의견 개진을 통해 처해진 환경과 한계를 감안하여 배점하였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선정된 단체들은 단년 사업계획의 단순 반복보다 3년간의 분명한 연도별 추진방향 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춘 공간들이 수행역량이나 활동목표 면에서 돋보였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기금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다른 창작주체와 수용자들에게까지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선정된 단체에 대한 예산배분은 지원금액에 근접한 비율로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예산규모에 맞춰 일부 조정은 불가피했다. 배분 과정에서 소액을 신청한 단체 나 평점이 높았던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액과 유사한 비율이 적용되었으 나 비교적 큰 금액을 신청한 단체에 적용된 비율과의 편차는 크지 않다.

소회 및 당부사항

창작주체 지원사업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분투하는 현장 창작 주체들의 사업 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좋은 취지를 지향한다. 처음 시행하는 사 업이다 보니 3개년간의 계획수립에 대한 일관성이나 구체성의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 가 많았던 지원안들도 많았음을 밝힌다.

또한 본 지원사업이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을 교부받 은 단체가 2년차, 3년차까지 동일한 관심과 수행역량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중간 모 니터링 절차가 추후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의 심의위원들에게서 제시되 었다. 더불어 선정자의 공익성과 미술계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 측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통해 국내 창작공간들의 다년간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 역량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 및 도모하는 기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 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